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송 주 형**

1. 들어가며
2.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 1) 9·11 테러 관련
 - 2)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 관련
 - 3) 팬암 항공 103편 폭파사건 관련
3.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의 기획
 - 1) 시민기록위원회 산하 구술팀 구성
 - 2) 구술 목표와 대상자
 - 3) 구술 채록 기간 및 방식
4. 세월호 구술의 실재
 - 1) 예산, 인력 등 재원의 부족
 - 2) 구술안내와 구술자 섭외
 - 3) 리드파일과 수집된 구술
5. 나오며

* 이 논문은 제6회 기록인대회 발표문 「구술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 세월호 사고 관련 구술 사례」(2014)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한국외대 기록학연구센터 연구원.
주요 논저: 「기록관리 대상으로서 SNS연구」, 『기록학연구』 39호, 한국기록학회, 2014.

▪투고일: 2015년 3월 13일 ▪최초심사일: 2015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 2015년 4월 13일

[국문초록]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1주기가 됐다. 사건발생 후 지금까지 기록학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산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시민기록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시민기록위원회 산하 구술증언팀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구술을 채록해왔다.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 종교계 인사, 시민운동가, 안산 시민 등으로부터 구술을 수집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은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를 기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구술 아카이브 구축이다. 갑작스레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상 기록이 많이 남겨지지 않고, 추모기록을 비롯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구술이야말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9·11 테러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미국의 ‘국립9·11추모박물관’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구술을 채록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를 기억하기 위해 ‘아워 마라톤’이라는 클라우드 소싱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됐다. 지역의 대학과 기관들이 협업해 만든 이 아카이브에서는 구술 채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팬암 항공 103편 테러사건은 시라큐스 대학에서 아카이브를 설립했다. 이곳 역시도 졸업생, 교직원,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등에게 구술을 수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 역시도 이런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희생자 추모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재난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주제어 : 세월호, 세월호 구술, 재난사고구술,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사회적 기억, 동시대 사건 기록화, 구술채록, 9·11

1. 들어가며

“NO DA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IME¹⁾”

로마의 서사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Aeneas)의 한 구절이다. 이는 2001년 9·11 테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해 개관한 ‘국립9·11추모박물관(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Museum)’ 벽면에도 새겨져 있다. 시간이 흘러도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어 추모박물관에 무척 적절한 시구라 생각된다. 그렇게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또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늘 기록을 남기고, 또 빛바랜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지난 기록을 들춰본다. 추모의 공간이나, 상징물을 찾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서해 페리호를 잊었고, 성수대교를 잊었으며, 삼풍백화점과 대구지하철 폭발도 하얗게 지워버렸다. 그 대가가 세월호는 아니었을까?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간다. 벌써 1년인지, 아직 1년 밖에 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월호에 대한 내 기억은 아직은 생생하다. 시커먼 바다 속으로 30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서서히 삼켜지는 모습은 내가 본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장면이었다. 이를 한참이나 무력하게 바라본 충격과 무능력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절대 가시지 않을 거 같았다. 하지만 나도 조금씩 무덤덤해짐을 느낀다. 2014년 4월 16일에 시계 바늘이 멈춰있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 달리, 1년, 2년,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감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은 무뎌져 갈 수 밖에 없다.

1) 시간의 흐름이 결코 당신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하리라.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지난 1년간의 ‘스펙타클’²⁾한 사건들은 우리를 끝없는 나라으로 이끈다. 한줄기 희망의 빛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유례가 없었던 일로 권력자들의 기록만 남아 항상 존재가 부정됐던 이들이 시도한 최초의 ‘반격’이다. 일련의 세월호 사건 기록화 활동은 ‘기록투쟁’이라고까지 불려도 좋을 듯 하다. 우리에게 기록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시민들은 연대해 행동했다. 기록학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월호 기억저장소를 만들자’³⁾는 논의를 시작으로 많은 노력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세월호 기억저장소 2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고, 그곳을 채울 각종 기록물들의 수집, 정리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진, 영상, 르포, 만화, 구술, 기록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시민기록위원회’의 활동들도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작가가기록단의 『금요일엔 돌아오렴』,⁴⁾ 『세월호를 기록하다』⁵⁾ 등의 결실이 대표적이다.

본고는 이러한 활동 중 하나인 세월호 구술채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시민기록위원회 학자기록단 구술증언팀의 활동을 정리하고, 활동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미흡했던 점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종의 구술 사례집 정도의 글로 학술적인 가치는 적겠지만,

2) 기 드보르 저, 이경숙 역,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 상황주의자였던 기 드보르는 ‘스펙타클’이라는 용어를 소비자 사회라는 개념에서 권력이 구사하는 모든 제도적, 기술적 수단과 방법, 거짓화해와 탈정치화의 수단으로 사회적 주체를 마비시키는 ‘아판’으로 인식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유병언, 구원파, 해경 해체, 세월호특별법 논란 등등 일련의 황당한 과정에서 우리가 참 ‘스펙타클’한 사회에서 살고있음을 다시금 상기했다.

3) 김익한, 「세월호 기억저장소를 만들자」, 『역사비평』 107호, 2014, 12-24쪽.

4) 416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창비, 2015.

5) 오준호, 『세월호를 기록하다』, 미지북스, 2015.

초기의 기획과 구술채록 과정 등 필자의 경험이 이후 세월호 관련 구술 또는 이와 유사한 구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이들에게 티끌만큼의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한다.

2.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카메라 등 테크놀로지의 혁명적 발달과 일상사와 미시사를 강조하는 역사학의 흐름, 아래로부터의 역사, 역사와 기억의 매개, 동시대 사건의 기록화,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참여, 사회갈등의 기록화 등 다양한 학문적 흐름 속에서 구술사는 최근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구술의 가치가 부정됐던 주관성 논란도 ‘그렇기 때문에 구술이 더 가치있다’는 정도로 정리가 돼가고 있다.⁶⁾ 또 기술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사례의 수를 늘려 통계적으로 주관성을 희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인다. 어느 면으로 보나 더 이상 구술이 무의미하다거나,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진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이나, 박물관, 기록관에 그럴 듯한 구술 아카이브 컬렉션 하나쯤 없으면 안될거 같고, 기관들이 발주하는 용역에서 구술 채록 사업은 단골메뉴가 돼버렸다. 역사학, 기록학, 인류학, 사회학 등 구술에 대해 학문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나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문자화된 기록이 부재한 동시대의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구술이 각광받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 문자기록이 있다하더라도 구술은 기록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증언한다. 또한 기록 속에 수록되지 못한 기록의 생산 맥락 및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

6) 조영재,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에 대한 하나의 해석: 정치엘리트 구술연구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3호, 2015.

다.7)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재난⁸⁾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난은 상대적으로 문자화된 기록이 부족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되는 사회적 기억이기 때문에 구술로 기록하기에 적합하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재난의 기록화에 있어 구술은 필수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 재난은 다양한 형태로 관련된 많은 이들의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화의 대상은 무척이나 광범위하다. 또한 모든 사건이 그렇듯 재난도 공시성(사건의 특성과 구조, 사건 참여자의 구성과 상호작용 등)과 통시성(사건 이전-사건의 진행-사건의 이후)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인지, 추모인지, 보상(배상)인지 그 목적에 따라 성격과 비중이 달라질 수는 있을 지언정 구술 없는 재난사고의 기록화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난사고를 기록화하는 데 구술아카이브 구축이 필수적이다.

1) 9·11 테러관련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빌딩 2동이 비행기와 차례로 충돌, 붕괴했다.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 알카에다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3,000여 명이 실종·사망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2014년 5월 16일, 끔찍한 재난의 현장이었던 그라

7)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호, 2010; 김명훈, 「기억과 기록: 사회적 기억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호, 2014.

8)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재난이다. 이와 달리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대규모 피해와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및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같은 재난 사고를 아카이빙한다.

운드 제로(Ground Zero)에는 국립9·11추모박물관(www.911memorial.org)이 건립됐다. 공사기간만 8년에 정부지원금과 시민기부금 등 약 7억 달러가 건립비용으로 사용됐다. 박물관에는 2,136건의 영구보존문서와 긴급구조차량 등과 같은 대형 유물 37점을 비롯해 10,313점의 전시물이 있다. 2,900명 이상의 기증자들로부터 받은 2만점 이상의 사진과 유품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통화 및 재난 구호 담당자들의 교신 등 1,995건의 음성기록, 테러범들이 공항에 들어서는 장면 등 580시간 분량의 영상기록이 전시되고 있다.)

유가족, 소방관,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들에게 받은 구술기록은 기록물에 담겨지지 않은 9·11 테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9·11 추모전시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온라인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은 5개 카테고리로 <표 1>과 같다.

<표 1> 국립9·11추모박물관에서 서비스하는 구술 카테고리외 구술자

구분	구술자
Family Members	유가족
First Responders	응급구조대원, 경찰, 소방관, 간호사 등
Lower Manhattan Residents	지역주민
Recovery Workers	소방관, 경찰, 엔지니어, 시청직원 등
Survivors	생존자
Original World Trade Center	엔지니어, 항만관리청 직원 등
Other Oral History Contributors	시민단체 관계자 등 기타 구술자

9) 황주영, [현장속으로] 로어맨해튼 9·11 추모박물관 르포, 2014년 5월29일자 뉴욕중앙일보.

〈그림 1〉 국립9·11추모박물관의 구술채록



* 출처: Call to Remember Archive.

박물관은 자발적으로 구술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Oral Remembrances’ (〈그림 1〉)를 통해 현재도 계속 구술을 수집하고 있다. 구술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박물관 소속의 구술사와 약속을 잡고, ‘Reflecting on 9/11’ 코너에 있는 레코딩 부스에서 구술을 진행한다. 박물관이 위치한 뉴욕까지 오기 힘든 이들의 구술을 받기 위해 ‘Call to Remember Archive’와 ‘StoryCorps’를 운영하고 있다. Call to Remember Archive는 전화의 음성녹음 기능과 유사하게 전화를 걸어 구술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동으로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영어나 스페인어를 선택하고 10분 이내의 구술을 남길 수 있다. 또한 9·11 테러 희생자에게 부여된 4자리수의 식별 코드를 넣어 이야기를 남기거나, 그 사람을 주제로 구술을 남길 수 있다. 몇 번이고 다시 녹음하면서 구술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도 있다. 면담자를 대면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구술 채록 형태이다. 또한 〈표 2〉와 같이 구술자가 이용할 약간의 질문지 샘플도 제공하고 있다.

〈표 2〉 Call to Remember Archive의 질문 샘플

구분	질문 샘플
자기 소개 및 관계	내 이름은 _____며, 나는 나의 _____인 _____를 기억합니다.
생전의 기억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만약 그/그녀가 지금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생전의 기억	그/그녀에 관한 가장 생생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고인에 대한 주변의 평가	그/그녀의 친구나 동료는 그/그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생전의 기억	그/그녀의 일 중 좋아하거나, 싫어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국립9·11추모박물관은 StoryCorps¹⁰⁾와 협력해 2005년부터 9·11 사건과 관련된 구술을 수집하고 있다. ‘September 11th Initiative’는 9·11 사건을 주제로 하는 구술을 대상으로 한다. 구술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역의 스토리부스를 방문하거나,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모바일부스(〈그림 2〉)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올 때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이용하면 된다. 추모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이들 구술은 기관의 설립 목적처럼 희생자들의 추모와 구조과정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구술의 대상이 광범위하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건 이후 테러의 희생자와 구조 등 대응의 측면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10) StoryCorps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음성으로 기록한다는 취지로 2003년 10월24일 뉴욕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시작된 대규모 구술프로젝트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면 애틀랜타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토리부스를 방문하거나,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모바일부스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부스는 마이크, 방음장치 등이 완비된 이동식 녹음실로 설계됐다. 현재까지 80,000명 이상의 참여자로부터 50,000개 이상의 구술이 채록됐으며, 미국의회도서관 미국민속센터에 보존된다. 또 좋은 내용은 공영라디오방송(NPR)을 통해 미국 전역에 소개되기도 한다. <torycorps.org/> [인용 날짜: 2015. 2. 26].

〈그림 2〉 StoryCorps에서 운영하는 모바일버스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9·11 테러 관련 구술사¹¹⁾는 서로 다른 연구 영역에 초점을 맞춘 5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추모박물관의 구술을 다소 보완하고 있다. 10년간 진행된 구술사는 600여 명으로부터 900시간(영상 23시간)이상을 채록했으며, 현재는 351명, 687시간의 구술이 아카이브에서 공개된다. 단순 추모보다는 9·11 이후 시민들의 일상 변화와 교육 등으로 대상과 목적을 다양화했으며, 여러 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이뤄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The September 11, 2001 Oral History Narrative and Memory Project

주류 언론과 정부가 급조한 프레임에서 벗어난 개인들의 경험을 모으는 등 가능한 9·11 테러 사건의 다양한 관점을 모으기 위해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로 진행됐다. 인터뷰에는 9·11의 여파로 직장을 잃는 등의 차별을 받은 다양한 인종과 직업군이 포함됐다. 아프간니스탄계 미국인, 무슬림, 시크교도, 라티노, 이민자와 지역 예술가 등 무역센터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방대한 그룹이 구술에 참여했다. 첫째 404명의 구술을 채록했으며, 2002년~2003년에 걸쳐 202명을 더

11) <http://library.columbia.edu/locations/ccoh/new_projects/9-11.html> [인용 날짜: 2015. 2. 27].

인터뷰했다. 프로젝트는 컬럼비아 대학 사회경제정책연구소(ISERP)와의 협력, 컬럼비아 대학 구술사센터(CCOH)의 면담 및 자문 자원봉사, 록펠러재단, 국립과학재단, 뉴욕타임즈재단, 컬럼비아 대학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The September 11, 2001 Response and Recovery Oral History Project
2002년 CCOH는 9·11 테러로 인해 발생한 뉴욕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문가 집단을 기록화했다. 2002~2005년 사이에 트라우마 서비스, 자선사업, 실업구제, 법률 및 인권,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가 68명으로부터 112시간의 구술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러한 아웃리치 서비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9·11 테러로 깊은 트라우마를 갖게 된 12명에 대한 추가 구술을 진행했다. 또한 재난을 기록하기 위해 구술을 하는 면담자, 언론인, 인권운동가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장가이드북을 작성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재단의 9·11 기금 지원을 받았다.

▲The September 11, 2001 Public Health Oral History Project
이 프로젝트에서는 9·11과 그 직후 발생했던 탄저균 공격에 대응했던 뉴욕시 보건국 직원 등 34명으로부터 30시간의 구술을 채록했다.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구술은 컬럼비아 공중보건대학의 데이빗 로즈너, 낸시 반 디반터 박사 등에 의해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에서 컬럼비아 공중보건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

▲The Telling Lives Oral History Programs
1948년 CCOH가 설립된 이래 최초의 대중 역사 프로그램으로 2002년 뉴욕타임즈 9·11기금의 지원으로 시작됐다. 세계무역센터 건설에 관해

지역의 철강노동자 40명과 인터뷰했으며, 아이들이 9·11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2003년부터는 웨브론텍사코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정규 학기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The Chinatown Documentation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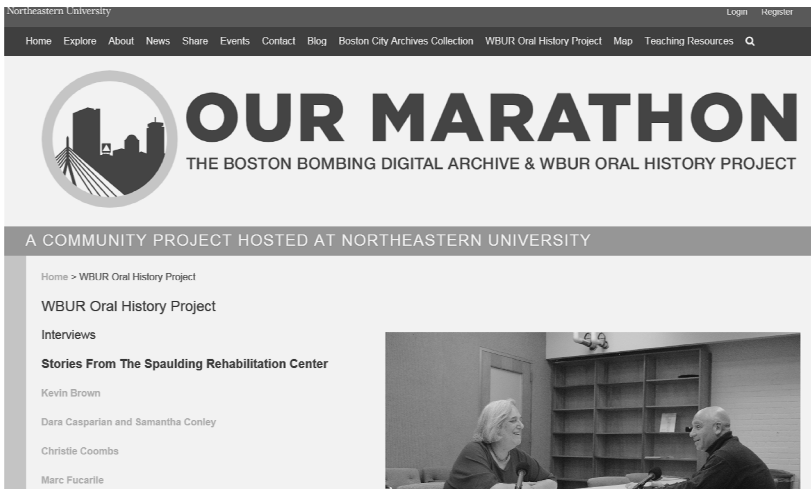
차이나타운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는 구술채록과 공공프로그램을 통해 9·11 기록화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의 강점을 공유하고, 차이나타운에서 9·11 사건의 의미 해석을 목표로 했다. 25건의 구술은 지역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검색, 제공되며, 국회도서관과 재미중국인박물관에 함께 아카이빙됐다.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진 프로젝트는 CCOH와 재미중국인박물관, 뉴욕시립대학 9/11디지털아카이브, 뉴욕대 아시안/태평양/아메리칸 스터디 프로그램과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2)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 관련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은 2013년 4월 15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 결승선에서 두 개의 폭탄이 터져 참가자와 관중 등 일반 시민들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압력술 폭탄’으로 일컬어지는 사제 폭발물이 현지 시각 오후 2시 50분경에 (12일 03:50 KST) 보일스톤가에 있는 코플리 광장 근처 결승선 직전에서 폭발하였고 이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60여 명이 부상당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폭탄테러로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다. 사건이 난지 2년이 지난 최근 테러용의자로 지목된 형제 가운데 살아남은 조하르 차르나예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난을 기록하기 위해 보스턴 시 아카이브와 노스이스턴 대학(Northeastern University), WCVB TV 등 지역의 여러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노력

하고 있다. 그 성과가 ‘아워 마라톤(OUR MARATHON)¹²⁾’이라는 클라우드 소싱 디지털 아카이브다. ‘Our Stories, Our Strength, Our Marathon’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있는 아워 마라톤은 생존자, 가족, 증인, 도시방문자 등으로 부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치유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미지와 감정, 그리고 경험을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사건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오픈한 아워 마라톤 사이트에는 보스턴 폭발 사고와 관련된 사진, 비디오, 소셜미디어 등이 꾸준히 아카이빙되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전에 구축된 9·11 디지털 아카이브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림 3〉 아워 마라톤의 온라인 구술아카이브



여타의 재난 기록과 마찬가지로 아워 마라톤에서도 구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술은 협력기관 중 하나인 라디오 방송국

12) <<http://marathon.neu.edu/>> [인용 날짜: 2015. 2. 21].

WBUR이 진행했다. 마라톤 폭발사고 관련 구술사 시리즈를 2014년 4월부터 'Boston Marathon Reflections'이라는 타이틀로 방송했으며, 나머지 구술사는 Our Marathon의 WBUR Oral History Project 페이지(〈그림 3〉)에 아카이빙되고 있다. 현재 〈표 3〉과 같이 사고피해 당사자, 희생자의 지인, 지역 주민 등 사건을 다각도로 증언해 줄 16명의 다양한 구술자의 구술이 공개되어 있다. 추후 더 많은 구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구술 프로젝트의 진행은 구술사학자인 Jayne Guberman 박사와 Joanna Shea O'Brien 두 명이 하고 있으며, 인터뷰 녹음과 후반작업 등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공동 디렉터 등 3명이 더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오디오 기술, 편집, 웹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구술 채록을 하고 있는데, 소수정예의 팀으로서의 강점과 라디오 방송국이 프로젝트의 주체인 것에 대한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라는 유사한 직종의 유사한 경험을 가진 구술자의 경우 공동구술을 진행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이다.

〈표 3〉 WBUR Oral History Project 구술자

구술자	직업	면담자	비고
Kevin Brown	목수	Jayne Guberman	
Marc Fucarile	사고피해자	Jayne Guberman	
Sergeant Clarence Henniger	MIT교내경찰	Jayne Guberman	
Dr. David King	의사	Jayne Guberman	
Bruce Mendelsohn	MIT 근무	Jayne Guberman	
Peter Payack	작가	Jayne Guberman	
Jimmy Plourde	소방관	Jayne Guberman	
Waheeda Saif	트라우마센터 근무	Jayne Guberman	
Alicia Shambo	지역주민	Jayne Guberman	
Minhui Zheng	중국인유학생	Joanna Shea O'Brien	사망자 친구
Dara Casparian	물리치료사	Joanna Shea O'Brien	공동 구술
Sam Conley	작업치료사		

Christie Coombs	프리랜서언론인	Joanna Shea O'Brien	
Mark Hagopian	호텔운영자	Joanna Shea O'Brien	
Prof. Eric Kolaczyk	보스턴대학 교수	Joanna Shea O'Brien	사망자 지도
Shane O'Hara	마라톤 동호인	Joanna Shea O'Brien	
Steve Phipps	지역주민	Joanna Shea O'Brien.	

* 출처: marathon.neu.edu/wburoralhistoryproject

3) 팬암 항공 103편 폭파 사건¹³⁾

팬암 항공 103편(Pan Am Flight 103)은 1988년 12월 서독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공항을 이륙해 런던 히스로 공항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이다. 12월 21일 수요일 스코틀랜드 로커비 읍 상공에서 팬암 103편은 폭발했고, 이로 인해 탑승자 259명 전원과 땅에 있던 스코틀랜드 주민 11명을 포함 270명이 사망했다. 이를 소위 로커비 테러(Lockerbie bombing)라 부른다.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은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희생자들 중에는 35명의 시라큐스 대학의 학생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대학은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팬암 항공 103/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Pan Am Flight 103/Lockerbie Air Disaster Archives)’가 그것이다. 1990년 설립된 이 아카이브에는 총 270개의 기록박스가 있다. 여기에는 신문과 잡지 스크랩, 사진, 재판 정보, 정부 문서, 책,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포스터, 전시자료 개별 희생자에 대한 특별 아이템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대학 행정부, 희생자 가족, 작가, 변호사, 동문 등이 기증한 것들로 198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료들이다.

구술기록은 ‘팬암 항공 103 스토리 아카이브 컬렉션’을 이루고 있으며, 사고 25주년이 되는 2013년부터 추모 활동의 일환으로 채록됐다.

13) <<http://archives.syr.edu/panam/scope.html>> [인용 날짜: 2015. 2. 21].

이는 팬암 항공 103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사고로 희생된 270명에 대한 기억과 함께 사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담고 있다. 프로젝트에는 2008년 오렌지TV에 방영되었던 참사 20주기 추모 인터뷰들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희생자의 가족, 친구, 시라큐스 대학의 교수와 직원, 로커비 커뮤니티 멤버 등 참사와 관련된 이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구술채록을 하고 있다. 구술 컬렉션은 Family and Friends of Victims, Syracuse University Alumni, Former Remembrance or Lockerbie Scholars, Syracuse University Faculty and Staff, Lockerbie, Others로 구분·구성되며 추가로 수행되는 구술도 여기에 맞춰 수집된다.

〈그림 4〉 쓰여진 이야기 접수양식


 Pan Am Flight 103/Lockerbie Air Disaster
ARCHIVES
of SYRACUSE UNIVERSITY

The Pan Am Flight 103 Story Archives Collection

Written Narrative Submission Form Email to pa103archives@syr.edu

Full Name:	<input type="text"/>
Today's Date:	<input type="text"/>
Mailing Address:	<input type="text"/>
Email Address:	<input type="text"/>
Full Name in 1988:	<input type="text"/>
Position Title in 1988: <small>(if applicable to Pan Am 103)</small>	<input type="text"/>
Position Title today: <small>(if retired, please indicate your position title at time of retirement)</small>	<input type="text"/>
Relationship to Victim: <small>(if applicable)</small>	<input type="text"/>

Please share with us your experiences with the bombing of Pan Am 103; begin with your recollections of December 21, 1988 and move chronologically from there.

아울러 ‘쓰여진 이야기(Written Narrative)’라는 이름으로 서면 답변도 수집하고 있다. <그림 4>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고 구술자별 구분에 따른 질문지 샘플(<표 4>)에 답변을 하면 된다. 양식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있으며, 당시와 현재의 지위를 묻고 있지만 대체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생략한 단순한 양식이다. 포맷과 함께 쓰여질 답변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술은 아니지만 구술녹취문의 성격이 강한 형태로 유사 구술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9·11 추모박물관의 구술 수집 방법처럼 비용과 구술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희생자 추모를 비롯해 당시의 감정 등을 묻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재난 구술채록을 수행하거나, 구술자의 건강, 제반 경비 등 구술채록에 여러 제한 사항이 있을 때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다. 물론 구술의 신뢰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형식의 엄밀함만을 과하게 요구하면서 기록을 놓치기 보다는 불완전한 형식이라도 구술을 수집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표 4> 팬암 항공 103/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 구술자별 질문 샘플

구술자	질문 샘플
희생자가족 / 친구	그·그녀의 성격은? / 그·그녀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 그들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일화 또는 이야기는? /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 당신과 1988년 이래 당신이 내린 결정에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 당신은 어떤 로비나 법적 절차 또는 정의를 추구하는 다른 수단에 참여했습니까? / 그렇다면 그에 관해, 아니라면 왜 그랬는지
시라큐스 졸업생	처음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 캠퍼스 또는 런던의 분위기는? / 희생된 35명의 학생과 안면이 있는지? / 그·그녀의 성격은? / 그·그녀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 그들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일화 또는 이야기는? / 이 사건이 캠퍼스 커뮤니티에 끼친 영향은? / 당신과 1988년 이래 당신이 내린 결정에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기억자 / 로커비 학자	35명의 학생 중 대표하는 사람은? / 그 그녀와 연결된 느낌은? / 캠퍼스에서 학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시리큐스 대학을 떠난 것이 학자가 되려던 당시의 선택에 미친 영향은?
시리큐스 대학 교직원	희생된 35명의 학생 중 개인적으로 아는 학생은? / 그 그녀의 성격은? / 그 그녀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 그들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일화 또는 이야기는? / 이 사건이 캠퍼스 커뮤니티에 끼친 영향은? / 당신과 1988년 이래 당신이 내린 결정에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 팬암항공 103편의 폭발이 오늘날 당신 커리큘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로커비 주민	팬암항공 103편이 로커비에서 폭발한 1988년 12월 21일 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 그날 밤에 관해 기억나는 것은? /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부상을 입었는지? / 재난 직후 또는 이후 몇 년 동안 즉시 미디어와 상호 작용 있었는지? / 피해자 가족이나 친구를 개인적으로 알게 됐는지? /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 / 그 그녀의 성격은? / 그 그녀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 그들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일화 또는 이야기는? / 이 사건이 당신·당신의 가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기타	어떻게 처음 폭발을 알게 되었는지? / 폭탄테러의 여파에서 당신의 역할은? / 어떻게 팬암 103편이 경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 어떻게 팬암 103편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 개인적으로 피해자 중 누구라도 알고 계십니까? /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중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까?

이밖에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¹⁴⁾ 일본 후쿠시마 원전유출 사고 등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많은 재난 사건, 사고에서 구술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제는 재난 뿐 아니라 모든 중요한 사회적 사건의 기록화에 구술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동시대인의 경험과 평가는 사회적 사건의 기록화 과정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레 발생하는 재난 사고의 특성상 기록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슬픔, 피해자의 가족과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기억이 점점 중시되는 현실에서 구술은 이것들을 포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재난의 성격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14) 스페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저, 김은혜 역,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새얼, 2011.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자의 진술(구술) 확보와 교차검증 등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재난에 대한 구술채록의 경험이 많지 않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외의 다양한 재난 구술프로젝트와 같은 재난 기록 구술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미국 StoryCorps를 벤치마킹한 서울 문화재단의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구술을 시작¹⁵⁾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이보다 조금 늦었지만 더욱 더 큰 의미와 울림이 있는 프로젝트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프로젝트다.

3.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의 기획

세월호 사건은 여러모로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다. 아직은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전쟁 이후의 최대의 참사’,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는 등의 표현은 단순한 수사만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보여준 일련의 기록 생산, 보존활동 등은 ‘기록투쟁’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한국에서도 ‘Occupy NY’에 버금가는 새로운 형태의 기록 실천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중 구술기록의 경우 그 태생 자체가 문서기록으로부터 소외된 피지배층 등 약자의 목소리를 담으려했던 운동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구술 역시도 공공기관 주도의 엘리트 구술이 주를 이루던 최근 한국의 구술 생태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물론 초기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 일뿐,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인만큼 많은 연구자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관심이 요

15) <www.sfac.or.kr/memoryinseoul> [인용 날짜: 2015. 2. 27].

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그 걸음마를 떼는 수준으로 세월호 구술의 초기 기획과 실제 수행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시민기록위원회¹⁶⁾ 산하 구술팀 구성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기록인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자신이 속한 학교나 단체 소속으로 세월호 관련 기록들을 남기고, 세월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세월호를 기록하는 시민 네트워크’와 ‘안산 시민기록위원회’도 그런 비슷한 고민의 결과로 꾸려졌다. 한국외대 기록학센터¹⁷⁾는 시민기록위원회 학자기록단 단장을 맡고 있던 한신대 이영남 등의 요청으로 구술기록 수집을 담당하는 구술증언팀을 꾸리게 된다. 시민기록위원회는 당시 영상기록단, 르포기록단, 학자기록단, 사진기록단 등 4개의 기록단으로 이뤄졌고, 학자기록단은 다시 기록관리팀(심성보), 구술증언팀(김명훈), 기록문화팀(이영남)으로 나뉘었다.

합류할 당시의 세월호 구술은 세월호에서 탈출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구술을 의미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공간에서 합숙생활을 하고 있던 단원고 생존학생들에게 세월호 침몰의 과정과 탈출 당시의 상황 등을 물어봐야 하는 구술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고, 무리한 제안이었지만, 진상규명을 해야만 하는 변호인단이 구술팀에 요구한 것은 그것이였다. 생존자 가족 대표와 미팅도 하며 나름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성년자에 대한 구술이자, 사고 후유증이 전혀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구술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부담이었다. 토크쇼나 간

16) 시민기록위원회 차원의 전개과정은 홍영의, 「4·16 참사 기억·기록운동의 전개과정과 의의」, 『제6회 기록인대회 발표문』, 2014를 참조.

17) 한국외대 교·강사들(이영학, 노명환, 김명훈, 이정연, 송주형 등)이 주로 안산 구술에 참여를 하고, 재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서울시, 팽목항, 안산 등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담회 형식으로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구술을 하자거나, 심리상담 워크숍을 공동으로 진행하자,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봉사자 등 생존학생들과 유대가 형성된 이들을 면담자로 활용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행히 상황이 바뀌 생존학생 구술은 없던 일이 되었지만 이렇듯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세월호 피해 가족과 시민기록위원회의 관계설정을 위한 회의가 계속되었고, 6월 중순이 돼서야 구술의 목표, 대상, 진행 등을 담은 계획이 수립됐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으로 6월 말 최초의 구술이 이뤄졌다. 사건 발생 후 2달, 구술팀 참여 결정 후 1달 정도만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사건의 추이를 살피고, 구술을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 총회 자리에서 기록위원회를 소개하고, 각 사업단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이해가 쉬운 영상기록단과 사진기록단 등에 비해 구술의 경우 유가족들이 생소하게 느끼고, 어려워해 구술자 섭외가 쉽지 않았다. 언론사의 인터뷰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 등도 장애요소였다.

2) 구술의 목표와 대상자

세월호 구술의 목표는 첫째 세월호 참사 관련자 기억의 구술을 통한 기록화, 둘째 구술을 통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실 확보, 셋째 생존자 및 유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 분들의 아픔 공유 및 치유¹⁸⁾, 넷째 채록된 구술의 항구적 보존 및 대한민국 역사사료로서의 후대 전승, 다섯째 구술자료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억으로 확산, 여섯째 구술을 통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꼽았다. 구술을 통한 화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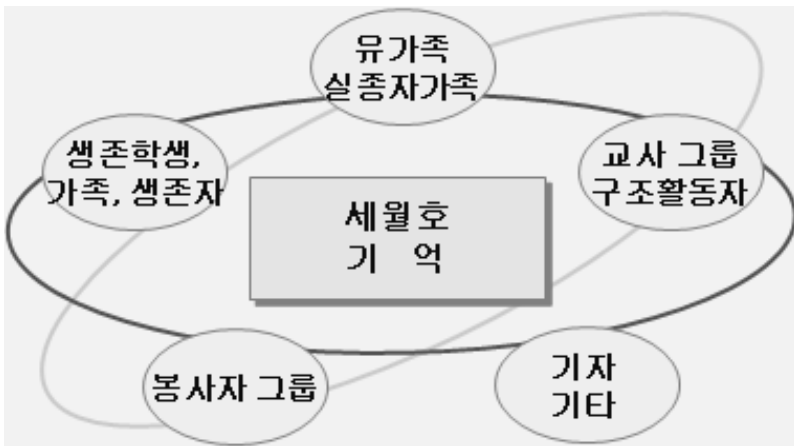
18) 윤택림, 「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적 사흔: 진실찾기와 치유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30, 2007; 김호연 외, 「구술사를 활용한 인문치료의 모색: 기억, 트라우마, 그리고 역사치료」, 『인문과학연구』 24호, 2007. 등

용서도 목표로 선정하려 했으나, 아직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없는 상황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민감할 수 있다는 시민 기록위원회 사무국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이들 목표는 <표 5>와 같이 '사실확보, 기록화, 공감과 치유, 보존 및 전승, 사회적 기억 확산, 희생자 추모'로 정리될 수 있다.

<표 5> 세월호 참사 구술의 목표

순번	목표	요약
1	세월호 참사 관련자 기억의 구술을 통한 기록화	기록화
2	세월호 참사 관련 사실 확보와 추모	사실 확보
3	세월호 참사 관련자의 아픔 공유 및 치유	공감과 치유
4	구술의 항구적 보존 및 대한민국 역사자료로서의 후대 전승	보존 및 후대 전승
5	구술자료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억으로 확산	사회적 기억 확산
6	구술을 통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	희생자 추모

<그림 5>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자 그룹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술 대상자를 <그림 5>와 같이 그

룹핑했다. 첫 번째 그룹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치유의 대상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의 간접적 증언을 해줄 수 있으며, 구조와 보상 등 침몰 이후 정부의 대응 등에 관한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생존자와 그 가족’이다. 이들 역시도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피해자로 세월호 참사 발생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교사 및 구조활동자’이다. 세월호에 탑승해 구조활동을 벌였던 교사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피해자이지만 생존학생들 보다 세월호 참사 발생 및 과정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있다. 구조활동자 그룹에는 이밖에도 마땅히 구조활동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않은 세월호 선원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법정에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진술을 받아야 하겠지만 구술을 통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 네 번째 그룹은 자원봉사자들이다. 팽목항과 진도체육관, 안산과 각 지역 분향소에는 전국적으로 수만,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땀을 흘렸다. 초기 자원봉사자의 경우 당시의 현장상황과 피해자들의 상태와 분위기를 구술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 내용과 소감 등을 채록한다면 이 또한 세월호의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다. 민간 잠수사와 진도 부근의 어민들도 채록되어야 할 이야기를 많이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자 등 기타 그룹이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피해가족과 함께 가장 먼저 진도로 내려간 기자들은 객관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전해줄 수 있으며 기사로 남기지 못한 뒷이야기 등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옮기고, 재난 상황에서의 취재윤리를 지키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기레기¹⁹⁾’ 소리까지 들었던 만큼 통렬한 반성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19) 기자 + 쓰레기.

3) 구술 채록 기간 및 방식

앞서 살펴본 9·11 테러 구술채록을 비롯해 해외의 많은 구술사프로젝트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진행한다. 구술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구술자 섭외, 구술자와의 라포 형성을 비롯해 질문지 작성단계 등을 조급하게 진행해서는 안된다. 세월호 구술의 경우 <그림 6>과 같이 총 6년의 계획을 우선 설정하였다. 2년씩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수립하려 했다. 예산의 경우도 안산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만큼 장비 및 소모품 구입 등이 포함된 최소한의 예산계획서를 작성했다. 1단계 2014~2015년은 구술채록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설정했다. 1년차에는 구술채록 자원봉사자 모집하여 팀을 구성하고 구술채록을 위한 표준절차 및 면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 했다. 자원봉사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제 구술채록을 수행하며, 채록된 구술을 가지고 모범 샘플 제작 및 구술활동 홍보를 통해 유가족을 비롯해 세월호 관계자들이 구술에 친숙해지도록 만드는 노력도 필요한 단계라 하겠다. 2년차인 2015년에는 구술채록 자원봉사자 범위 확대, 생존학생 등으로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영상전문팀과의 협조를 통해 구술 결과물을 활용한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 제작도 고려해볼 수 있는 단계다.

2단계 2016년~2017년까지는 구술채록의 확산단계로 구술대상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구술채록이 이뤄지는 단계로 잡았다. 마지막 3단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로 구술자료를 시민사회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사회적 기억화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키려 했다. 1, 2단계에서 채록한 구술을 잘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단계라 하겠다.

〈그림 6〉 세월호 구술의 단계별 계획



채록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술자 섭외 → 구술일자 확정 → 구술 팀 배정 → 구술수행 → 구술결과물 정리 및 보존> 순으로 진행한다. 팀 구성은 면담자, 촬영자, 면담보조자 등 3인 1팀으로 이뤄지며, 캠코더, 보이스레코더 등 장비를 구입해 안정적으로 구술을 채록한다. 동영상 촬영과 음성녹음을 병행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구술 채록에 있어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구술자 섭외의 경우 세월호 유가족 및 생존자가족협의회 추천 및 연락처를 제공받아 섭외한다. 일단 구술이 진행되면 그 구술자에게 다음 구술자를 추천해줄 것을 부탁한다. 단원고 학부모의 경우 학급별로 친분이 있으므로 반별로 구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술 시간은 구술자 1인 대상으로 2시간 내외로 진행하고, 구술자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구술을 하는 합동 구술도 고려한다.

구술 장소는 안산 화랑공원에 위치한 시민기록위원회 부스, 경기도 미술관의 공간, 구술자 자택 등 탄력적으로 선정한다. 구술을 마친 후 사본을 제작해 구술자에게 증정하고, 녹취문과 각종 구술서식을 완성해 인물별 콜렉션으로 관리한다. 추가 외장하드를 이용해 원본을 중복 보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 시민기록위원회 내부의 작가팀, 영상

팀 등 중복 구술이 될 경우 구술자에게 피해가 있는 만큼 영상팀의 인터뷰 영상이나 작가팀의 녹음파일 등을 구술로 갈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 세월호 구술의 실재

1) 예산, 인력 등 재원의 부족

거창하게 세워놓은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 구술이 진행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카메라 등 장비구입비, 건전지 등의 소모품비, 약간의 교통비를 책정한 최소한의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할 수 없었고,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워져만 갔다. 구술을 촬영할 카메라 구입하지 못해 여기저기에서 대여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캠코더 1대를 후원받을 수 있었다. 3인 1팀을 꾸려 안정적으로 진행하려 했던 구술은 인력이 부족해 촬영자, 면담자 2명이 팀을 이뤄 진행했다. 때론 혼자서 촬영과 면담을 다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휴대폰 녹음기능으로 채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될 건 없겠지만 산출물의 질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들 생업이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를 위해 쪼개서 만든 시간을 구술자와 맞추는 것이 무척 어려웠고, 거주지가 대부분 서울인 팀원들이 왕복 3~4시간을 장비를 들고 안산까지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구술 작업의 특성상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도 제한사항이었다. 여차피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만큼 조급하게 굴지 않으면 되건만 매주 진행되는 시민기록위원회 회의 참석과 다른 팀과의 비교, 유가족들의 투쟁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압박 등도 은근한 스트레스였다. 국내·외의 많

은 사례에서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질높은 산출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의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팀원들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면 프로젝트는 좌초할 수밖에 없다.

2) 구술안내와 구술자 섭외

구술자 섭외 역시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가족대책위에 있는 유가족들은 기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지만, 구술에 적극적인 분일수록 대책위 활동이 바빠 구술을 할 짬을 내기 힘들었다. 힘들게 구술 약속을 잡아도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 일쑤였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각종 집회, 항의 방문 등등 유가족에게 구술을 요청하는 건 오히려 죄송스러운 일이었다. 팀원들에게 발급된 시민기록위원회 신분증(〈그림 7〉)은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사진팀과 영상팀에게는 어디든 유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티켓이었지만, 차분히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구술팀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

〈그림 7〉 시민기록위원회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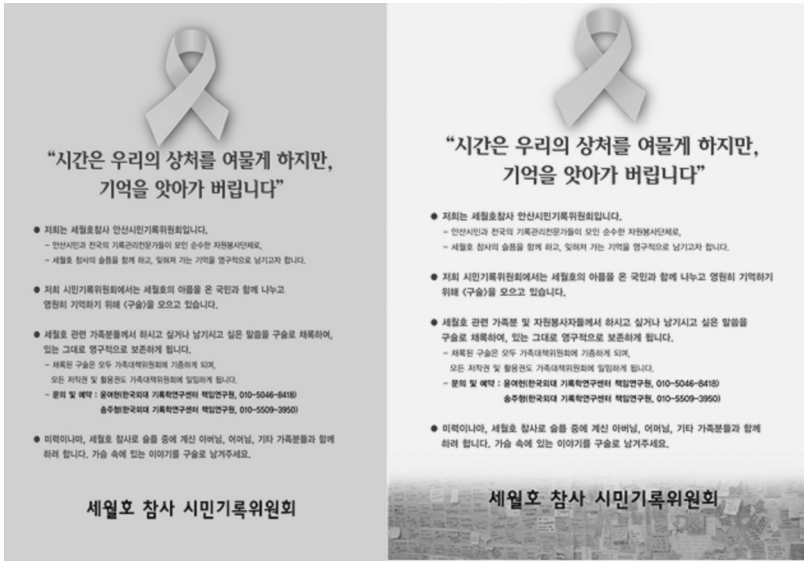
하지만 틈나는 대로 라포 형성을 위해 안산 화랑공원의 유가족 부스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러면서 구술작업에 대해 알리고 구술자 섭외를 위한 팜플렛(〈그림 8〉)을 제작해 돌렸다. 팜플렛을 보고 연락해 온 경우는 한 건도 없었지만,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은 듯 했다. 구술 시작 전 취지를 설명하는데도 잘 활용했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구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 방송 인터뷰와 차이점을 잘 알지 못했고, 언론사에 시달려 막연히 카메라에 반감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적과 싸우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가롭게 구술 카메라를 들이치는 것에 대해 팀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었다. 사진 기록단은 거리 사진전을 개최하고, 작가기록단에서는 언론에 기고를 하는 등 그들의 작업은 분명 유가족들의 투쟁에게 직접적으로 큰 보탬이 되는 일들이었다.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자신의 실적이 되는 다른 팀과 달리 개인적으로 별다른 성과가 되지않는 구술팀은 분명 활동의 동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구술 작업에 있어 법적인 작업이 필수적이지만²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활동인만큼 이를 최소화하였다. 그렇지만 각종 구술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표준화된 양식을 약간 변형한 서식 [부록1]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동의 절차와 구술자의 정보를 받았다. 구술동의서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다양한 분들의 기억과 경험을 구술로 채록·정리·보존한다는 활동의 내용과 진상규명과 역사자료로서 후세에 전승한다는 활동의 목표를 설명했다. 또한 구술자의 구술이 세월호 관계자와 일반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구술자료 헌정동의서를 통해 구술자료를 가족대책위원회에 헌정하고, 세월호 참사 추모활동의 목적을 전제로 한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 활용·공개권한을 대책위에 모두 위임한다는 것도 추가했다.

20) Donald A. Ritchie ed., *The Oxford Handbook of Oral History*, 2010, pp.351-371

구술자 신상기록의 경우도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함께 ‘세월호 관련’ 생존자/생존자가족/유가족/자원봉사자/기타로 표시하도록 하고 세월호 탑승자 관련 정보를 적도록 했다. 약력 등도 생애사 구술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정보보다는 세월호 관련 약력 및 활동 사항을 간략히 넣었다. 구술에 들어가면 질문을 통해 다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류작업 등을 통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 진도체육관이 나 광화문 농성장 등 여건이 미비한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생략하기도 했다.

〈그림 8〉 구술자 섭외 및 설명을 위한 팸플릿



3) 리드파일과 수집된 구술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들 열심히 참여했고, 부족하나마

조금씩 구술이 수행됐다. 안산 지역신문을 펼쳐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구술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알아내고, 구술을 부탁하는 지난한 과정(〈표 6〉)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흔쾌히 구술에 응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성과가 났다. 안산지역 시민단체를 소개해주는 분도 만날 수 있어 이후 구술자 섭외는 수월했던 경우도 있었다.

초기에 유가족을 위주로 구술하라는 압박 아닌 압박으로 구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의 기억’이라는 사회적 기억을 포착하는 구술로 방향을 바꾸면서 채록이 활발히 이뤄졌다. 주로 안산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구술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들 구술의 가치를 낮게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자원봉사자의 경우 그 당시, 그 현장이 아니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구술 채록이 이뤄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설사 나중에 다시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봉사하는 그 순간과 현장에서 구술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 것이다. 반대로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 상처가 약간이나마 아물었을 때 구술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은 언론에서 인터뷰를 따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구술로까지 관련자들을 괴롭힐 필요는 없을 듯 했다. 결락된 기록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의 전통적인 구술의 역할이라면 세월호 참사처럼 현재도 진행되며 끊임없이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술을 잠시 중단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치열한 투쟁의 현장에서는 사진팀의 카메라가, 작가팀의 펜, 다큐멘터리팀의 캠코더의 직접 기록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표 6〉 구술사전조사 및 리드파일 작성 예시

사전조사		▲‘안산의 기억’ 구술을 위한 사전정보조사 ▲안산지역신문 관련기사조사/ 인터넷 관련 정보조사 ▲안산시민단체 간부 등 사전인터뷰 실시/ 총 6개 영역으로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참여단체	활동내역	구술	구술자
시민 단체	안산시민 대책위	세월호 문제해결 을 위한 안산시민 대책위	추모음악회와 촛불문화제, 세월 호 사고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세월호 진상규명 및 특별 법 제정촉구, 세월호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1천만 서명 운동	예정	운영위원장 등
시민 단체	시민기록 위원회	시민기록위원회	세월호 참사관련 기록 생산 및 수집활동	예정	위원장 및 위원
시민 단체	추모 문화	한국만화가협회 안산지부, 우리만 화연대	세월호 100일 특별 만화전시 회 개최	수행	한국만화가협 회 부회장, 안 산지부장
시민 단체	복지	안산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 관 네트워크	공동체 치유 및 회복프로젝트	수행	복지관 네트워 크 사무국장
시민 단체	기타	기타	기타 활동	수행	안산화사랑 갤 러리 관장, 소 장
종교계	기독교	안산제일교회	세월호 관련 개신교연합회 회장	수행	안산기독교연 합회 회장
종교계	기독교	안산기독교연합 회	세월호 관련 개신교연합회 회장	수행	안산기독교연 합회 총무
자원봉사 단체		안산시의료단체 협의회	의료지원센터, 자원봉사약국,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수행	안산시약사회 회장
자원봉사 단체		대한적십자사 안 산지부	안산 합동분향소 자원봉사 총괄	수행	안산지구협의 회장, 분향소 자 원봉사자
시당국 / 의회	시당국	안산시건강가족 지원센터	유가족 상담, 음식지원, 아이 돌보미 사업 등	수행	직원
시당국 / 의회	시당국	안산정신건강트 라우마센터	세월호사고 이후 안산시민의 치 유와 회복을 위한 대시민 강좌	수행	상임팀장, 지역 사회팀장
교사		원곡고	단원고 관련 고등학교	수행	역사교사
단원고 총동문회		단원고총동문회	단원고총동문회	예정	

지난 6월 말 첫 구술을 시작한 이래로 <표 7>과 같이 자원봉사자 8명, 교사 2명, 추모작가 5명, 종교인 3명, 유가족 3명, 시민단체 4명, 공공기관 3명, 연예인 1명으로, 총 30명 20시간 남짓 구술 채록을 수행했다. 10명은 음성파일이고, 20명은 동영상 파일이다. 채록된 장소는 안산 화랑공원부터, 진도실내체육관, 광화문 등 다양하다. 아직 녹취록 작성, 코드 부여, 편집 등 후반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서식은 시민기록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영상도 조금 손을 보고 한정하려 한다. 자료보존용 외장하드도 구입하지 못해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존했지만, 이제 세월호 기억저장소가 완성된 만큼 그곳에서 잘 보존하고 활용을 하리라 생각된다. 앞선 해외 사례에서 본 것처럼 세월호 참사 구술도 4·16 기억저장소 한켠에 구술을 위한 레코딩부스를 만든다던지, 온라인 아카이브, 전화 등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구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는 특별법, 인양, 추모집회, 보상, 책임자 처벌 등등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이다.

<표 7> 세월호 관련자 구술 현황

분류	구술자	소속 및 직책	장소	비고
자원 봉사자 그룹	김OO	안산시약사회 회장	안산화랑분양소	동영상
	박OO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지구협의회장	안산화랑분양소	동영상
	오OO	안산시지원봉사센터 주임 / 팽목항 담당자	진도실내체육관	음성
	김OO	대한적십자사 안산지부 / 분향소 식당팀장	안산화랑분양소	동영상
	조OO	대한적십자사 월피봉사회 / 분향소 총무	안산화랑분양소	동영상
	전OO	안산시건강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안산화랑분양소	음성
	오OO	시민기록위원회 간사	안산화랑분양소	음성
	홍OO	안산자율방재단	안산화랑분양소	음성
교사	김OO	원곡고등학교 역사교사	안산화랑분양소	동영상
	신OO	원일중학교 역사교사	안산화랑분양소	동영상

추모작가	이00	한국만화가협회 부회장	단원미술관	동영상
	이00	시민기록위원회 사진작가단장	안산화랑분양소	동영상
	서00	안산 화사랑갤러리 관장	안산화랑분양소	동영상
	최 0	안산 화사랑심리상담연구소장	안산화랑분양소	동영상
	김00	세월호 희생자 심촌 / 한국만화가협회	단원미술관	동영상
종교인	송00	안산기독교연합회장	안산 예원교회	동영상
	권 0	안산기독교연합회	안산화랑분양소	음성
	나00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	광화문 단식농성장	음성
	전00	세월호 희생자 이모 / 수녀님	광화문 단식농성장	음성
유가족	유00	세월호 희생자 오빠	상록수역 커피숍	동영상
	김00	세월호 희생자 아버지	광화문 단식농성장	음성
	박00	세월호 희생자 누나	안산화랑분양소	동영상
시민단체	정00	안산 민예총 사무국장	안산 민예총	동영상
	한00	안산 시민대책위원회 / 새사회일다 대표	새사회일다 회의실	동영상
	박00	세월호사고 가족대책위 비상근간사	초지복지관	동영상
	이00	단원노인복지관부장 / 촛불집회 등 주도	단원노인복지관	동영상
공공기관	조00	안산신건강가족지원센터 직원	안산화랑분양소	음성
	안00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상임팀장	안산트라우마센터	동영상
	김00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지역사회팀장	안산트라우마센터	동영상
연예인	김00	가수	광화문 단식농성장	음성

5. 나오며

세월호 침몰과 이후 수습과정을 보며 충격과 분노, 안타까움 등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 뭐라도 도울 일을 찾아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시민기록위원회였고, 학자기록단 산하 구술증언팀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이 글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활동의 중간 점검 성격을 띤 글이다. 기존에 해오던 구술작업과 워낙 성격도, 상황도 다르다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도 해본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이

후에 구술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은 전 세계적으로도 국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를 기록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구술 아카이브 구축이다. 갑작스레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상 기록이 많이 남겨지지 않고, 추모기록을 비롯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구술은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 테러를 추모하기 위해 13년이 지난 2014년 5월 국립9·11추모박물관을 건립했다. 이곳에서 구술은 중요한 프로젝트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다. 2013년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로 지역의 대학과 기관들은 ‘아워 마라톤’이라는 클라우드 소싱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이곳에서도 그날의 재난을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인터뷰해 기록하고 있다. 시라큐스 대학은 1988년 리비아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폭파된 펜암 항공 103편에 대한 아카이브를 설립해 사고와 희생자들을 기억한다.

이처럼 구술은 동시대의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문서기록의 결락을 보완하는 전통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문서기록의 의미와 진위여부, 맥락 등을 파악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또한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다수 민중들의 관점과 입장이 담겨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수단이다. 물론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인간의 기억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랜 시절 무시당해왔지만, 기술의 발전과 미시사, 생활사를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구술의 위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인력과 예산 등 재원확보가 어려워 계획한 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착오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도 아키비스트의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가 여러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건의 기록화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으니 말이다.

많은 사례에서 보듯 구술아카이브 구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 이미 확보한 세월호 관련 구술은 조만간 문을 여는 4·16 기억저장소 2관을 비롯해 온라인 구술아카이브 등에서 공개되고,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장기간 보존되고, 일부 연구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많은 이들의 신속한 활용이 본 구술의 목적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되는 구술로 인해 마음을 단았던 유가족들을 비롯해 더 많은 이들의 구술이 수집될 수 있고, 그만큼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바르게 형성될 것이다.

아울러 초창기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유가족에게 호의적인 구술자만을 주 대상으로 했던 초기의 구술에서 더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일베’²¹⁾ 회원 등으로까지 구술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민이 아버지 등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을 하는 옆에서 버젓이 폭식투쟁을 벌이고, 온라인상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이미지와 글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현실 또한 우리사회의 서글픈 단면이고,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기록이 곧 구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구술채록 시스템에 있어서는 해외의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수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술을 통한 재난사고의 기록화는 현재 세월호 참사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구술을 체계적으로 잘 수집하고 활용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물론 되풀이되는 재난을 예방하는 역할의 확대까지도 기대해 본다.

21) 일베저장소 <<http://www.ilbe.com/>>.

구술자료 헌정 동의서

본인은 세월호 참사 안산시민기록위원회의 구술 자료 수집 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녹음·녹화 테이프 및 파일, 녹취록 및 파일로 만든다.
2. 구술자료를 향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 헌정한다.
2.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게 세월호 참사 추모활동의 목적을 전제로 한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과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년 월 일

활동명 : 세월호 참사 관련자 구술 채록

구술자 성명 : (인)

면담자 성명 : (인)

세월호 참사 안산시민기록위원회 귀중

구술자 신상 기록부

활동명	세월호 참사 관련자 구술채록 활동		면담자	
			면담일시	
			면담장소	
이름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현주소			성 별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이메일)	(직장)	직 업	
세월호 관련	1. 생존자 / 2. 생존자 가족 / 3. 유가족 / 4. 자원봉사자 / 5. 기타			
세월호 담승자 관련	이름		나이	
	성별		소속	
	구술자와의 관계		비고	
세월호 관련 약력 및 활동 상황	시기	활동 내용		
* 특이 사항 및 요구 사항 :				
* 면담자 기록사항 :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구술질문지〉*

본 구술은 잊혀져가는 세월호 참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전승하기 위해, 안산시 민기록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지금부터 ○○○님의 구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14년 0월 0일이며, 장소는 00000입니다. 그리고 면담자는 안산시민기록위원회 학자기록단 구술채록팀 소속 □□□입니다. 이번 구술을 승낙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본인 및 가족 소개

- ▶ 간략한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 안산에서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 선생님과 가족분들의 최근 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 故 ○○○군(양)에 대해

- ▶ ○○○군(양)은 평소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어떤 자녀였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 ○○○군(양)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몇 반이었고, 교우 관계나 학교생활은 어떠했는지요?
- ▶ ○○○군(양)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군(양)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 ○○○군(양)이 집을 나선 이후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어떤 연락을 주고 받으셨는지요? 받으셨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 ○○○군(양)이 세월호에 탑승한 이후에 전화 통화나 연락을 주고받으신 것이 있으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 ○○○군(양)과의 마지막 연락은 언제,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 ▶ 핸드폰을 비롯해 ○○○군(양)의 소지품을 전달받으셨는지요? 받으셨다면 핸드폰 속 사진이나 통화 내역의 특이사항은 없었는지요?

* 상세 내용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

- ▶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기록위원회는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희생자들의 유품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양)의 유품도 기증을 할 계획이신지요?

■ 세월호 사건에 대해

- ▶ 세월호가 전복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 ▶ 사건 직후 단원고등학교나 안산시교육청 등에서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받았다면 어떤 형태와 내용이 었는지요?
- ▶ 세월호 사건 직후 정부발표와 언론보도는 단원과 학생이 전원 구출되었다는 오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사건 직후 가족 분들이 팽목항으로 달려가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언제 팽목항으로 내려가셨고, 당시 팽목항의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 ▶ 당시 팽목항에서의 정부 대응 및 구조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 ▶ 진도체육관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왔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 ○○○군(양)이 발견되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부의 대책 및 언론보도에 대해

- ▶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에도 진도 체육관에는 실종자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 ▶ 현재 여아의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기를 희망하십니까? 또 조사위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많은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팽목항에 상주해 있으면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희생자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 ▶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그 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십시오.

■ 마무리 질문

- ▶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십니까?
- ▶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을 ○○○군(양)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장시간 소중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자원봉사자 그룹 구술질문지〉*

<시작 멘트>

본 구술은 잊혀져가는 세월호 참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전승하기 위해, 안산시
민기록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지금부터 (구술자 간략 소개)○○○님의
구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14년 0월 0일이며, 장소는 00000입니
다. 그리고 면담자는 안산시민기록위원회 학자기록단 구술채록팀 소속 □□□입
니다. 이번 구술을 승낙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입

- 1) 본인에 대한 간략 소개(나이, 성명, 거주지, 하시는 일 등)
- 2) 세월호참사 관련 봉사활동 단체명 및 봉사활동 유형

2. 세월호참사 관련 봉사활동

- 1) 세월호참사 관련 봉사활동 동기
- 2)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상세히)
- 3) 봉사활동의 애로와 보람
- 4) 봉사활동 중 인상 깊게 남는 특별한 경험 및 에피소드

3. 시민으로서의 입장과 마무리 질문

- 1)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개인적 입장 및 정부 대응에 대한 견해
- 2) 정부와 관계당국에 하고 싶은 말
- 3)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 4)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 소중한 구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상세 내용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

ABSTRACT

Disaster Documentation through Oral History : Focus on Sinking of the MV Sewol

Song, Zoo Hyung

Disaster of Sewol took place in one year. Meanwhile, the victim's family and the call time record academics have tried to record it. Ansan activists have moved to objectives such as civil records committee also pivotal. The citizens committee under the dictation recording oral history team has a diverse group of people associated with the time issue. Bereaved families were collected from the oral as well as volunteers, religious personnel, activists, Ansan citizens and various people. Disasters around the world is also an important event to remember and honor the people together, and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to record There it is establishing an oral history archive. Does not leave a lot of nature history of sudden disasters that occur, as well as a tribute record dictation telling people of diverse perspectives on events helps a lot closer to the reality of the event.

Erected in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Museum to honor the Sept. 11 attacks and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to chaerok dictation of the people involved with 9/11.

To remember the 2013 Boston Marathon bombing 'Our Marathon' of crowdsourcing digital archive was built. In the archives of the local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were created to collaborate actively and gathering oral history. Pan Am Flight 103 pieces terror has established an

archive from Syracuse University. Here, neither graduates, faculty, and to the victim's family and friends gather and oral history.

Disaster-related Sewol neither should be able to be used as in the case of foreign well, and it should continue to honor the victims of the collection. It also ought to occasion again to avoid this disaster on earth.

Key words : MV Sewol, MV Sewol Oral History, Disaster Oral History, Disaster of Sewol Civil Board of Archive, Social Memory, Documentation of Contemporary events, 9 · 11

